

지배적 서구와 한국 사회과학 관계 맺기: 『글로벌 지식장과 상징폭력』 논의를 중심으로*

조영철 ■ 전북대학교**

최진우 ■ 한양대학교***

〈국문요약〉

이 논문은 한국 학계에서 최근 논쟁이 된 『글로벌 지식장과 상징폭력』(2015)이라는 저작을 중심으로, 글로벌 지식장에서 헤게모니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서구 사회과학과 한국 사회과학의 관계 맺기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글로벌』의 비판적 읽기를 통해서 한국 안팎에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는 서구 주류 사회과학지식/학계에 대하여 한국 사회과학자들의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으며, 맺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다루고자 한다. 『글로벌』은 설명적 이론의 기반인 실증주의적 메타이론이 글로벌 지식장에서 당연히 준수해야할 공인구라고 지적하고, 그 공인구를 사용해서 이론화를 해야 서구의 인정을 받고 한국 학계의 서구 종속성을 극복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의 이해는 구성적 이론 혹은 이론의 구성적 측면을 간과하는 단선적인, 그리고 제한적인 이론의 이해이다. 여기서 공인구는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지식을 구분하는 게이트키퍼를 하면서 학계에서 인식론적 폭력을 행사한다. 이는 채용, 승진, 평가 등의 학자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국제정치학계의 경험을 유추해 볼 때 주류학계의 지배적인 인식론을 쓰지 않아도 글로벌 지식장의 변형과 발전은 가능하다. 또한, 『글로벌』의 서구 인정을 통한 서구 종속성 극복이라는 방식의 근저에는 주변인의 식민주의가 배태되어 있다. 이론화가 정치적 행위임을, 학문으로서 사회과학이 현실정치에 종종 연루됨을 고려할 때, 이론가의 연구태도는 연구내용만큼 중요하다.

*주제어: 서구중심주의, 사회과학, 지식생산, 메타이론, 게이트키퍼

*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3970).

** 제1저자

*** 교신저자

I. 서 론

한국 사회과학은 서구(특히, 미국) 사회과학의 지적, 제도적 기반과 영향력 하에서 구축되고 학문 발전을 이루어 왔다.¹⁾ 한국 사회과학은 한국전쟁 이후 부국강병과 국가 근대화라는 담론과 맞물려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수입된 학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사회과학자들은 서구 사상, 이론 및 방법론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면서, 수입 지식의 소화에 충실해 왔다. 또한, 수입된 서구의 인식틀과 방법론을 적용해서 한국 정치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했고,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 예를 들면, 국제정치학에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이라는 서구의 지배적 이론들은 한국 외교행태, 남북관계 및 동북아 국제정치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적 틀의 역할을 해오면서, 외교 정책적 함의도 제공했다 (김우상 2007; Chun 2013). 정치사회학에서는 현대 한국사회 내부의 계급 갈등문제를 성찰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피에르 부르디외의 ‘아비투스’나 ‘상징폭력’이라는 개념은 적실성 있는 분석적 도구로 이용된다 (홍성민 2004; 2012). 1997년 금융위기 이후의 한국 경제변동의 궤적과 국가 경제정책의 실행은 신자유주의적 경제학 접근으로 쉽게 포착된다. 한국의 서구 사회과학 수입은 한국 발전과 생존을 위한 능동적 수입이었고, 한국 사회에 대한 서구 사회과학의 기여는 크다.

이러한 서구 사회과학의 장점과 기여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과학은 그 안에 배태된 패권적 서구중심성과 그에 수반되는 문제점 - 서구이론의 기계적 적용에 의한 비서구적 맥락의 의도적 무시와 곡해, 지배적인 서구지식에 의한 토착지식의 주변화, 서구 지식과 서구 이익 간의 친밀한 연계, 수입 지식을 통한 한국 내 엘리트층의 기득권 유지 등 - 은 한국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어왔다 (김경일 외. 2006; Kang 2006). 한국 사회과학은 미국 사회과학이며, 미국 사회과학보다 더 미국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영명 2010; 김종영 2015). 이러한 성찰 속에 한국 인문사회과학계에서는 ‘우리’, ‘주체적’, ‘한국적’, ‘토착적’, ‘비서구적’ 등의 접두사를 쓰면서, 한국학자들에 의한 혹은 한국발 사회과학이론 개발을 통한 토착적 지식생산에 대한 지속적인 목소리가 있어 왔다 (강정인 외. 2014; 2016a; 2016b; 김경일 외. 2006; 교수신문 2003). 한국적 사회과학 이론(화)에 의

1) 지역적 측면에서 미국 사회과학과 유럽 혹은 서구 사회과학이 의미하는 바는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이 논문은 영토적 공간의 입장에서 미국 사회과학과 유럽 사회과학을 구분하지 않는다. 여기서 서구 사회과학이라는 의미는 학계에서 지적 헤게모니를 휘두르는 서로 연관된 서구 주류 지적전통들을 하나의 군(cluster)으로 보고자 한다.

한 토착적 지식생산의 목소리는 탈냉전 세계화시대의 한국의 국력 성장과 맞물려서 한국 학계에서 더욱 더 탄력을 받고 있다 (Cho 2015). 이러한 한국적 사회과학 이론(화)의 논의와 함께 사회과학 이론의 엄밀성과 일반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적’이라기 보다는 서구처럼, 서구와 같이 보편주의적 사회과학 이론을 만드는 방식으로 한국 사회과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김우상 2007; 교수신문 2015/06/01; Choi 2008). 이 두 가지 접근법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이론화 평가의 준거점을 서구 사회과학에 두고 있으며 한국 사회과학의 발전과 글로벌 학계에서 한국 학계의 위계적 위치와 자리매김에 관심이 있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학술적 배경 속에서, 이 논문은 최근 논쟁이 된 사회학자 김경만의 『글로벌 지식장과 상징폭력: 한국 사회과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 (2015, 이하 『글로벌』)을 중심으로, 글로벌 지식장에서 헤게모니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서구 주류 사회과학과 한국 사회과학의 관계 맺기와 관련한 비판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이 논문은 『글로벌』의 비판적 읽기를 통해서 한국 안팎에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는 서구 주류 사회과학지식/학계에 대하여 한국 사회과학자들의 어떻게 관계를 맺어 왔으며, 맺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다루고자 한다. 그러면, 이 논문은 왜 『글로벌』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가? 최근 학술적, 사회적 논쟁된 『글로벌』은 (김경만 2016; 김덕영 2016; 정수복 2015; 정태석 2016)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논의의 가치가 있다. 첫째, ‘한국적’, ‘토착적’, ‘탈서구적’ 이론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처럼 『글로벌』은 한국 사회과학의 서구 종속성이라는 문제 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서구 종속성의 극복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 한국적 이론화 목소리에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둘째, 사회과학 이론(화)에 대한 입장과 관련하여 한국 학계는 크게 일반성과 엄밀성을 추구하는 서구 주류이론의 ‘보편주의’를 옹호하는 견해와 맥락적 민감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적 이론화 및 한국발 지식 확장을 추구하는 ‘보편특수주의’ 견해로 나뉘는 경향이 있다 (Choi 2008). 『글로벌』은 어느 한쪽 견해에 대한 일방적 지지를 하기 보다는, 정당한 지식/정당하지 않은 지식을 구분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ing) 측면에서 한국에서 사회과학 하기(doing social science in Korea)를 논의 한다. 셋째, 동종 분과 학문 학자들 사이에서 주로 소비 되는 다른 사회과학 학술 서적에 비해서, 사회학자에 의해서 쓰인 『글로벌』은 그 논쟁의 범위가 사회학을 넘어서 사회과학 분과학문 학제간의 성격을 가진다. 넷째, 구체적인 이론의 논의를 다루는 사회과학 전문서적으로는 드물게 언론을 통해서 대중적, 사회적 주목도 받아왔다 (경향신문 2015/06/07; 조선일보 2015/06/11; 한국일보 2015/06/03). 다섯째, 사회과

학 이론화에 있어서 지배적 생산자인 서구와 수입 소비자인 비서구의 비대칭적 관계에 대한 고민, 그리고 비서구 지역에서의 토착적 이론 생산 목소리는 한국만의 고유한 현상이 아니다. 현실에서의 식민주의 종식과 아시아의 부상, 학계에서 탈식민주의를 위시한 비판이론의 영향력 확대, 비서구 학계의 성찰 등을 통해서, 비서구 학계에서 자신들의 사회문화현상을 서구이론과 함께 자신들의 언어로 기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Acharya and Buzan eds. 2010; Tickner and Blaney eds. 2012). 비교연구 맥락에서, 『글로벌』의 한국 학계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타 비서구 학계에서 진행되는 자국 사회과학 이론화와 관련된 논의에 한국에서 친작된 하나의 관점을 제공한다.

『글로벌』 비판적 읽기를 바탕으로, 지배적 서구 학계와 한국 사회과학의 관계 맺기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전개 한다. 『글로벌』은 설명적 이론의 기반인 실증주의적 메타이론이 글로벌 지식장에서 공인구 - 당연히 준수해야하는 인식론적 기준과 규칙 - 라고 선언하고, 그 공인구를 사용해서 이론화를 해야 서구의 인정을 받고 한국 학계의 서구 종속성을 극복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글로벌』의 이러한 이론의 이해는 구성적 이론 혹은 이론의 구성적 측면을 간과하는 단선적인 그리고 제한적인 이론의 이해이다. 여기서 공인구는 정당한/정당하지 않은 지식을 구분하는 게이트키퍼를 하면서 학계에서 인식론적 폭력을 행사한다. 이는 학자들의 일상적 삶 - 예, 고용안정 - 에도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국제정치학계의 경험에서 유추해 볼 때 주류학계의 지배적인 인식론을 쓰지 않아도 글로벌 지식장의 변형과 발전은 가능하다. 또한, 서구 인정을 통한 서구 종속성 극복이라는 방식의 근저에는 주변인의 식민주의가 배태되어 있다. 이론화가 정치적 행위임을, 학문으로서 사회과학이 현실정치에 종종 연루됨을 고려할 때, 이론가의 연구태도는 연구내용만큼 중요하다.

본격적 논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회과학 내의 국제정치학이라는 분과학문의 간략한 배경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글로벌』은 사회학자에 의해서 쓰여 졌으나 학제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국제정치학계의 지식생산을 예로 보면서 사회학 기반의 『글로벌』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시도 한다. 타 사회과학 분과학문들과 비교해서 '전통적인' 혹은 '주류' 국제정치학의 학문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과학문으로 국제정치학의 역사는 백년 남짓으로, 상대적으로 일천하다. 둘째, 국제정치학의 학문적 기반, 특히 이론적 기반은 학제적(서양철학, 역사학, 경제학, 심리학 등)이다. 국제정치학은 잡종적이며, 타 학문의 이론과 지식을 수입 이용해서 구성되면서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발전되었다. 현대 학문발전의 측면에서 국제정치학의 잡종성은 단

점이 아니라 장점이다. 여러 분과학문을 받아 들이고 발전시키는 국제정치학의 학제간 성격은 그 학문의 다양성과 깊이를 더 한다. 또한, 복잡다단하고 역동적인 현실 국제관계에 힘입어서 국제정치학은 불과 몇 십년 만에 글로벌 수준에서 공유되는 하나의 지식장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셋째, 국가, 국가들 간의 관계 및 웨스트팔리안 국제체제를 주 연구대상으로 삼아온 국제정치학은 존재론적으로 서구 사상과 경험이라는 ‘특수’한 역사와 전통에 기반을 두면서 서구중심적, 국가중심적 경향을 가져 왔다. 국가안보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수단적 지식생산을 권장 받는 정책과학적 성격을 요구 받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된 일천한 역사, 후발주자로서 국제정치학, 서구중심적·국가중심적·정책적 사고 등은 국제관계에서 행위자와 구조의 변화 보다는 안정과 관리를 추구하는 국제정치학의 보수화에 기여해 왔다. 아직까지 국제정치학은 사회과학 내의 분과 학문들 중에 가장 서구중심적이고, 국가중심적 논의와 관련된 보수적인 지식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 국제정치학도 예외는 아니다.

이 논문의 중심주제인 헤게모니적 서구와 한국 사회과학 관계 맺기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서구 종속성 극복과 관련된 『글로벌』의 핵심 논점을 분석적으로 요약하고 장점을 살펴 본다. 3장에서는 『글로벌』 핵심 논점에 감춰진 메타이론적 전제가 어떻게 주류 학계의 지식생산과 유통 관련 게이트키퍼로 작동함을 살피고, 이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던진다. 4장에서는 『글로벌』이 주장하는 서구 종속성 극복의 유일한 방안이 실제에서 꼭 유일한 방안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3장과 4장은 국제정치학계의 예를 통해서 『글로벌』의 핵심 논점을 학제비교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결론을 대신하는 5장에서는 서구 종속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글로벌』의 논점 안에 배태된 식민주의가 작동함을 보이고, 정치적 행위인 이론화에 있어서 이론가의 연구태도의 중요성을 밝히고 글을 맺는다.

II. 『글로벌』: 서구 언어를 통한 한국 사회과학의 서구종속성 극복

“한국 사회과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라는 부제가 보여주듯이 『글로벌』의 연구대상과 목적은 명확하다. 사회학 이론에 대한 학문적 논의도 있으나, 『글로벌』은 한국 사회과학자들의 학문하는 방식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한국 학계의

서구 종속성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제대로 된” 방식의 사회과학 학문하는 방법의 제시이다. 이 목적에 맞게, 서론과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글로벌』은 두 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는 하나의 명료한 논쟁적 논점을 제시한다. 제 1부인 “‘한국적’ 사회과학이라는 신기루”에서, 『글로벌』은 강신표, 김경동, 한완상, 조한혜정, 강정인 등의 한국 학계의 유명한 사회과학자들의 실명을 거론 하면서 비판한다. 비판의 핵심은, 위에 거론된 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한국 사회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서구 이론에 대한 “이른바 ‘토착적 이론’, ‘한국적 이론’, 및 ‘탈식민지 이론’들이 그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경만 2015: 12). 다시 말해서, 한국적인 사회과학을 주장하는 언술은 아무런 의미 있는 결과도 산출 하지 못하고 한국 학계에서 서구 종속성을 재생산할 뿐이다 (김경만 2015: 11-2, 119-126). 『글로벌』에 따르면, 대다수 한국 사회과학자들은 “서구 의존적인 사대주의적 자기비하”의 경향성이 있고, 동시에 서구 지배이론과 대결을 피하는 “글로벌 지식장의 방관자”들이다 (김경만 2015: 10). 즉, “한국 학자들 대부분은 독립된 상징공간에 몰입해 [글로벌 지식장에서 통용 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 한다 (김경만 2015: 135). 더욱이 한국 사회과학자들은 한국적 맥락에서 서구이론의 적실성 부재를 비판하지만, 그들은 서구이론 자체를 모르며 공부를 제대로 안한다고 비난한다. 『글로벌』은 “적실성을 논하려면 서구이론의 ‘담벼락’ 앞에서 그들과 ‘유회’할 정도로 그 내용을 훤히 꿰뚫고 있어야 하는데, 과연 한국의 사회과학자들[강신표, 김경동, 한완상, 조한혜정, 강정인 등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정말로 이들이 레비스트로스, 푸코, 알튀세르, 하버마스, 기든스, 부르디외의 이론을 잘 소화하고, 그래서 그 이론들이 한국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꾸짖는다 (김경만 2015: 51). 한국 사회과학자들의 게으름과 글로벌 경쟁을 회피하는 학문적 태도로 인해서, “현재 한국 학계는 존경받는 지적 리더도 또한 비판의 표적이 되는 도발적인 연구를 한” 사람도 없다고 김경만은 지적한다 (교수신문 2015/06/01). 결국, 『글로벌』이 분석하는 한국 학계는 한국적 사회과학을 주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생산적, 후진적, 그리고 서구 종속적 이다 (김경만 2015: 129).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글로벌』의 제 2부인 “글로벌 지식장 안으로”에서 해결방안이 제시된다. 제 2부는 소위 자기민속지라는 방식으로 저자 본인은 “자신이 어떻게 글로벌 지식장에서 투쟁해왔는가를 서술”한다 (김경만 2015: 139). 이 자기애적 기술을 통해서 저자는 한국 사회과학자들에게 자신처럼 연구하라고 충고한다. 『글로벌』은 “한국 사회과학의 서구 종속성을

극복하려면 한국사회에 부적합한 서구 이론의 무분별한 차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구호가 아니라 서구 이론을 대체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경만 2015: 표지).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저자처럼 “글로벌 지식장에 입문해서 평야와 구릉을 넘나들고 봉우리를 향해 숨 가쁘게” 내 달려서 “나름대로 투쟁의 ‘지적계적’을 남기라고 충고한다 (김경만 2015: 139). 다시 말해서, 주류 서구 이론을 완벽히 체화시킨 다음에, 서구 이론의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글로벌 지식장에 그들의 이론 언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쟁하고, 거기서 [서구로부터] 독창성을 인정”받고, 서구가 “만들어놓은 [글로벌]지식장의 구조를 변형시키는 길”이 한국 사회과학의 서구 종속성 타파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김경만 2015: 129, 13). 『글로벌』이 제시하는 서구종속성 극복은 네 부분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서구 이론의 능동적 수용과 꼼꼼한 소화(서구 배우기). 둘째, 습득된 서구 학술 언어를 가지고 서구 지식장에서 서구학자들과 논쟁(서구와 경쟁하기). 셋째, 서구 학술 문법에 기반한 사회과학 이론 만들기(서구이론 개발하기). 넷째, 개발한 이론을 서구 지식장에 통용(서구에서 인정받기). 이를 『글로벌』에서는 “부르디외 전략”이라는 용어를 써서 기술하고 있다 (김경만 2015: 249). 『글로벌』 논점의 요체는 지적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서구 학계의 인정을 통한 한국 학계의 후진성, 비생산성 및 서구종속성 극복이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글로벌』 저자를 제외하고는, 서구를 상대로 이러한 작업을 당당하게 제대로 하는 사회과학자가 없다는 것이다.

무미건조하고 딱딱하다고 비판받는 기존의 사회과학 글쓰기에 비해서 『글로벌』은 일인칭 대화체 글쓰기를 통해서 저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글로벌』의 논쟁적인 능동형 문체는 명료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글의 가독성과 설득력을 높인다. 기존의 저자를 감추는 방식의 소위 객관적 혹은 중립적 사회과학 글쓰기 방식에 비해서, 『글로벌』의 일인칭 글쓰기가 논쟁을 통한 사회과학 학문적 발전에 더 기여한다. 저자가 보여 주는 서구 사회학 이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무엇보다도 서구 학계에서 상징권력을 얻기 위한 이론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투쟁 문법에 능통함은 『글로벌』의 장점이다. 한국 학술문화를 구성하는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연구태도와 관련해서, 『글로벌』이 지적한 실명 비판 부재, 학자 상호간 작업에 대한 관심 부재, 대중인기 영합주의, 현실권력 지향주의 등도 고민이 필요한 지점들이다. 그간 한국 학계에서 드문 실명비판은 논쟁을 통한 학술발전에 필요한 것이며 장려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서로의 학문적 작업에 대한 관심 부재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 『글로벌』은 인기 영합주의에 기반한 학자들의 대중적 “식탁류” 저서 증가와 이를 통한 학자들의

정부 요직 진입을 매섭게 비판한다. 인기에 영합해 정부에서 한자리를 차지한 학자들이 각종 교육과 학술 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학계와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런 학자들은 진정한 학자가 아니라 세속적 성공을 향한 기회주의자이며, 이들이 학문의 “상업주의와 사회과학의 저급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김경만 2015: 74-85). 『글로벌』의 이러한 지적은 일정 부분 타당하다. 이 논문은 『글로벌』에 기술된 몇몇 구체적인 사회학 이론(가)에 대한 저자의 해석과 평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헤게모니적 서구 학계와 한국 사회과학의 관계 맺기라는 측면에서, 이 논문은 한국 학계의 서구종속성 극복을 위해서 『글로벌』이 주장한 유일한 방식 - 서구이론 언어의 완벽한 체화와 서구 학계의 인정을 통한 한국 학계의 후진성과 서구종속성 극복 - 을 중심으로 비판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II. 이론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치적인 질문

흔히 ‘과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회과학에서 학자들은 이론과 지식을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진리(Truth)를 추구해야함을 요구 받는다. 그러나, 인문사회과학에서 이론이란 항상 특정 목적과 특정 사람들에 봉사하며 (Cox 1986, 27), 권력은 지식을 생산하고 권력과 지식은 서로를 직접적으로 암시한다는 지적이 있다 (Foucault 1979, 27). 즉, 종종 이론화라는 것은 가치중립적 학술 활동이 아니며, 특정한 시공간에 배태된 이론가의 특정관점, 이익 및 권력에 연루된 정치적 행위이다. 이론이란 무엇을 분석할지 안할지의 하나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세계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지에 대한 특정한 견해를 제공한다. 사회과학 이론이란 단지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정치적이다. 예를 들면, 경제학에서 신자유주의 이론가는 거리를 두고 국제정치경제현상을 단순히 기술, 분석하는 것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행동을 요구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세계를 구성한다. 이로써, 자기 예언적 방식으로 신자유주의 이론의 적실성은 더 높아진다. 위의 지식/권력 연계의 맥락에서, 학계란 각기 다른 규범적 정향, 이데올로기, 맥락, 이익 등으로 특정 지어진 복수의 학자들로 만들어진다. 학계는 권력을 행사하는 학자들(특히, 이론가들)의 정치적 투쟁이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강력한 공간이다.

『글로벌 지식장과 상징폭력』이라는 책 제목에서 글로벌 지식장이란 서구 학계(특히, 미국 학계)를 의미한다. 이 맥락에서 비서구 학계는 비글로벌 지식장 혹은 로컬 지식장으로 이해가 된다. 여기서 서구(글로벌 지식장)는 지식생산, 소비, 유통 및 지배구조와 관련된 상징폭력 -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 문화적, 일상적 수준에서 약자의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 내는 권력행위 - 을 비서구(로컬 지식장)에게 행사한다. 서구는 비서구의 “거부할 수 없는 [지식]준거점”며 (김경만 2015: 108), 고로 상징자본을 가진 서구와 가지지 못한 비서구 사이에는 위계적 종속관계가 성립된다. 서구 안에서도 갈등적 관계의 주류와 비주류가 존재한다. 이는 지식장이 상징권력을 행사하는 학자들(특히, 이론가들)의 서열 투쟁이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정치적 공간임을 의미한다. 『글로벌』의 맥락에서, 서구 지식장은 글로벌 지식장이라기보다는 헤게모니 투쟁의 장이다. 사실 서구라는 지역 학문이 그 자체로 글로벌하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서구학문이 전 세계로 퍼지고 수입이 되는 것은 그 지식 자체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정치적 측면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 『글로벌』에 따르면, 이러한 권력정치의 지식장에서 한국 학자들이 서구가 인정하는 이론을 개발할 때만, 한국 학계의 서구종속성이 극복된다고 열정적으로 설파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구의 이론적 자원에 능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구 학계의 학술 문법과 규정 - 다시 말해서 서구 주류 학계의 학술 교전규칙(rules of engagement) - 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이 점은 『글로벌』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이 상징공간[글로벌 지식장=서구 학계]이라는 경기장에는 ‘당연히’ 준수해야 할 규칙이 존재하고, 이 규칙은 경기진행 방식뿐 아니라, 경기도구의 규정, 선수의 자격, 제제사항 및 벌칙 등을 포함한다. 물론 이 상징공간과 규칙은 서구 학자들이 만들어놓은 것이고 ‘당연히’ 조한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우리의 언어’는 경기에 사용할 수 있는 ‘공인구’가 아니다. (73쪽)

여기서 글로벌 지식장의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공인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글로벌』은, “장에 참여하는 사회학자는 글로벌 지식장이 부과하는 인지적 규범(장의 다양한 지적전통과 뛰어난 연구를 가리기 위해 장의 참여자들이 합의한 인식론적 기준과 규칙)을 체화하고 더 많은 상징자본은 획득하고자 투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언급한다 (김경만 2015: 11). 결국, 공인구의 핵심은 서구 주류학계에서 “합의한 인식론적 기준과 규칙”이며, 이는 “글로벌 지식장이 부과한 ‘엄격한 지적 요구 조건’”이라고 주장 한다 (김경만 2015: 11).

서구 주류학계의 메타이론(meta-theory)적 전제로 이해 할 수 있는 “합의한 인식론적 기준과 규칙”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글로벌』에서 이론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살펴 보아야한다. 즉, ‘이론이란 무엇인가’라는 분석적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정치적, 윤리적 질문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글로벌』은 “탈서구의 한국적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론이 무엇인지조차 논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김경만 2015: 109), 한국 사회과학자들이 글로벌 지식장의 합의된 인식론적 기준과 규칙도 이해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1. 이론이란 무엇인가. 한국적 이론의 허구성”이라는 섹션에서 10쪽 이상에 걸쳐서 이론에 대한 『글로벌』 저자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어쨌든 사회과학의 대상은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추상적인 대상을 어떻게 ‘구체적’이고 ‘접근 가능한’ 대상으로 변환할 수 있을까? 많은 방법론 교과서가 말해주듯 연구는 관찰에서 시작한다고 가정해보자. ... 이처럼 관찰과 기록을 이어갔다고 하자. 이제 관찰을 기록한 많은 양의 노트를 갖게 됐다. 이 관찰기록은 그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 이 무질서한 자료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론이다. (110쪽)

이제 비로소 이론이 무엇인지 정의할 때가 된 듯하다. 전통적으로 통용돼온 이론의 정의는 “현실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명제들의 집합” 정도일 것이다. 그야말로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막막한 추상적인 정의다. 그러나 지금껏 논의한 바, 이론은 “실재나 현실을 잡아내거나 담아내기 위해 고안된 유기적으로 연결된 개념들의 망”이다. (118쪽)

위의 설명에 따르면, 연구자의 시선 저 밖에 사회과학 연구 대상인 독립적 실재(외부세계)는 존재하며, 이론은 그런 실재를 설명하고, 엄밀한 설명을 통해서 실재의 양태나 변화를 예측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추상적인 정의는 『글로벌』의 1장(“수입도매상 대 독창적인 한국이론?”)에서 김경동의 한국 경제성장에 대한 한국적 이론과 관련된 비판에서 더 명확히 드러난다.

김경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가의 기” 또는 “한국민의 기”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지 아무런 답이 없다. 이렇게 측정 가능한 개념 정의가 없다면 경제성장과 기 사이의 연관관계는 사회과학 분석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 왜냐면 개념의 ‘조작화’ 없이는 기가 성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기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성장이 더디면 기가 없어서이고 성

장이 빠르면 기가 있어서인가? 이것은 전형적인 동어반복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 성장과 기가 독립적인 변인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경제성장이 관찰되면 ‘기가’ 있는 것이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기가’ 빠진 것이다. 이런 논리적 오류를 피하는 방법은 기의 측정뿐이다. ... 문제는 기를 어떤 식으로든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그 양을 비교하는 것”이 이론화의 핵인데, 이와 같은 분석적 질문은 김경동의 논의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또한 이렇게 축적된 기가 어떤 사회적 정치적 조건하에서 분출하는가라는 기의 분출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조건’을 명시해야 ‘기’이론은 설명적인 이론이 될 수 있다.

요컨대 김경동의 주장이 최소한 이론으로 거듭나려면, ① 기를 어떻게 경험적으로 정의할 것인지 먼저 찾아내고, ② 정의에 따라 어떻게 기의 ‘양’을 측정할 것인지 명확히 하고, ③ 각 시대마다 기의 양이 다르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④ 어떤 사회, 경제, 문화, 정치의 조건에서 축적된 기가 분출되는지 규명하고, ⑤ 이 분출로 발생하는 기의 양과 경제발전의 속도나 크기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김경동은 이러한 분석적인 문제들에 관해서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는다. (42-3쪽)

『글로벌』 저자는 스스로를 논리실증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김경만 2015: 42), 위에서 언급된 이론 관련 논의를 보면, 그가 자연과학연구에서 차용된 실증주의적 메타이론을 근거로 김경동에 대한 비판을 진행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실증주의 메타이론의 기본 요체는 관찰자와 관찰대상(외부세계)은 각기 독립해서 존재하고, 관찰자는 관찰대상을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가치중립적인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론을 생산한다. 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로 이루어진 실증주의 이론은 관찰대상을 설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관찰자의 이론은 관찰대상인 실제 혹은 외부세계에 대응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응을 통한 외부세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실증주의 이론은 엄밀성과 일반화를 추구한다. 최소한의 변수로 최대치를 설명해야 하며, 그 설명은 최대한 시공간을 초월해야 한다. 설명과 함께 실증주의 이론의 중요한 목적은 예측이다. 설명력이 완벽하거나 아주 높다면, 외부세계에 대한 예측 또한 가능하다. 예측이 가능하기에, 미래와 외부세계에 대한 인간의 조작도 가능하고,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라는 결과가 도출된다. 사회과학에서 설명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러한 실증주의적 이론의 이해는 주류 학계의 지배적인 사고이

2) 이 기술은 김경만의 인식론을 단순화 시켰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김경만은 『글로벌』 이전의 그의 다른 저작에서 메타이론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글로벌』에 한정해서, 『글로벌』이 어떻게 지식생산, 유통 및 소비의 게이 트키피를 진행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진행한다.

고, 이론에 대한 타당한 접근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증주의적 메타이론(『글로벌』의 공인구)이 사회과학에서 존재하는 이론에 대한 모든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이론에는 설명적 이론도 있으나 구성적 이론도 있다 (Smith and Owens 2005). 설명적 이론은 실재(외부세계)에 대한 설명에 관한 것이나, 구성적 이론은 실재 자체 구성에 도움을 준다. 설명적 이론에서는 독립적 외부세계가 실제로 존재함으로 객관적인 방식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진리에 대한 주장은 참과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재에 정확히 대응이 되면 참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여기서 이론의 중요성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재에 대한 - 주로, 인과론적 - 설명(explanation)이다. 반면에 구성적 이론의 측면에서는 자연세계(the natural world)와는 달리 사회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사회세계(the social world)는 관찰자와 완벽히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친다. 관찰자는 관찰대상에 이미 들어가 있다. 실재는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 사회란 구성물이다. 우리들의 언어와 개념은 연구대상인 사회 세계 자체를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이론의 방점은 실재의 구성과 관련된 조건, 환경, 맥락, 상호작용 등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이다 (Hollis 1994; Hollis and Smith 1990). 분석적 차원에서 설명적 이론과 구성적 이론이라는 분류를 하였으나, 현실에서는 종종 하나의 이론 자체가 설명적 측면과 구성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는 다음과 같이 국제정치체제를 설명한다. 이기적인 국가행위자들과 그들의 상호작용으로 국제체제는 구성되어 있다. 국제체제는 국내체제와는 달리 무정부적이다. 이기적인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체제 무정부성의 본질은 갈등이다. 무정부적인 갈등상태에서 각 국가들의 가장 중대한 국가이익은 생존이며, 이를 위해서 국가는 권력, 특히 물리력을 추구해야 한다. 강대국들은 국제체제의 패권을 위해서 권력집중에 몰두하며, 약소국들은 생존을 위해서 강대국 정치논리를 따라야 한다. 현실주의 이론은 전쟁으로 점철된 국제정치의 실재를 일면 잘 설명된다. 그러나, 실제에서 국가중심적 현실주의 이론은 권력을 소유한 몇몇 강대국과 소수의 국가엘리트층 이익과 관점에 봉사하는 경향성을 가지며, 이러한 권력/지식 연계는 현실주의 이론이 국제정치학에서 이론적 헤게모니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헤게모니적 이론이 되었다는 의미는, 이기적인 국가, 갈등, 무정부성, 생존, 권력정치, 패권 등으로 그려지는 현실주의의 외부세계(국제체제)가 대다수의 청중이 당연시 받아들이는 하나의 상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특정 관점이 의심할 필요가 없는 상식이 되면, 행위자들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그 상식화된 관점의 기반 위에서

사고하고 행위를 결정한다. 이러한 현실주의가 녹아들어가 있는 행위들은 실제 정치에 있어서 현실주의가 설파하는 실재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현실주의의 교혼을 증명하고 더욱 강화시킨다. 즉, 이론이 실재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설명적/구성적 이론 논의를 고려 할 때, 『글로벌』이 열정적으로 주장하는 공인구인 실증주의 메타이론만이 단 하나의 유일하고, 올바른 이론에 대한 이해라고 주장하면서 학문적 게이트 키피ng 하는 것은 단선적일 뿐만 아니라 편협하다. 구성적 이론 혹은 이론의 구성적 측면은 『글로벌』이 우러러보는 서구에서도 통용되는 이론과 관련된 하나의 이해 방식이다. 『글로벌』이 유일하게 옳다고 생각하는 공인구만 가지고 인간과 사회를 이해할 때, 우리 인식의 지평은 협소화된다. 『글로벌』은 “무조건 어떤 주장을 당연시하는 잘못된 풍토를 고치고 치열하게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 풍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나 (김경만 2015: 46), 『글로벌』의 공인구는 누구나 따라야 하는 ‘당연한 것’으로 취급한다.

또한, 『글로벌』은 자신의 공인구가 유일한 합법적 공인구라고 주장하면서, 이론의 이해와 관련해서 특정 해석을 강요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미 지적했듯이 지식장을 권력(혹은 상징자본)정치의 투쟁의 장으로 이해할 때, 『글로벌』의 공인구는 편협성을 넘어서 폭력적 공인구가 된다. 『글로벌』공인구의 기본 메카니즘은 차별과 배제의 논리를 통한 특정 지식장 안에서의 영역 확보와 이를 통한 특정 이론가들의 이익 및 지배권 유지를 위한 게이트 키피ng이다. 『글로벌』의 공인구는 ‘정당한’, ‘주류적 혹은 정설의’, ‘선진적’, ‘올바른’, ‘합법적’, ‘보편적’이라는 상위 가치가 부여되며, 다른 공인구는 ‘공인구’라는 이름도 거부 될 뿐만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비주류적 혹은 이단적’, ‘후진적’, ‘틀린’, ‘국지적’라는 하위 가치가 부여 된다. 이런 위계적 차별을 통해서 『글로벌』의 공인구를 이용하지 않은 연구는 정당한 학술 활동에서 배제가 된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은 본인의 공인구를 통해서 특정한 지역 지식장을 “글로벌” 지식장이라고 칭하면서, 그 지식장의 사적 이해관계를 전 세계 학자 모두의 보편적이고 공적인 이해관계로 전환시킨다. 이러한 인식론적 폭력은 단순히 학술적 차원의 지식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다. 이는 학자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헤게모니 지향의 학자들이 차별과 배제의 논리로 그들만의 지식장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통용되는 저널, 책, 연구비, 인맥구축 등을 통해서 상대 학자를 식별, 평가한다. 이는 학자들의 채용, 승진평가, 연구비 수주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식론적 폭력은 현실에서 학자들의 고용 안정(job security)에 연결된다 (김영명 2010; 김종영 2015; 홍성민 2008; 경향신문 2010/08/20). 인식론적 폭력

이 드러나지 않게 특정 집단의 물질적 이익구조에 정당성을 제공하는 경향성을 가진다. 『글로벌』은 많은 한국인 연구자들이 미국 유학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계의 서구중속성이 극복 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김경만 2015: 12). 『글로벌』의 저자가 유학을 한 1980년대와 그 이전에는 선진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구미로 유학의 길을 떠나는 것 가장 큰 동기였으리라 생각되나, 2000년대 이후의 신세대 연구자들의 중요한 유학 동기 중의 하나는 유학 이후의 본인의 고용 시장성(job marketability)이다. 이 지점과 관련된 미국 주류 학계와 연계된 한국적 상황은 『글로벌』과 같은 2015년에 발간된 김중영의 『지배받는 지배자: 미국 유학과 한국 엘리트의 탄생』에서 적확히 지적하고 있다.

지배적 주류 학계의 인식론적 폭력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글로벌』의 저자도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며, 부르디외의 '상징폭력' 개념을 이용하면서 오히려 인식론적 폭력을 긍정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글로벌』에 따르면, 소위 글로벌 지식장은 상징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상징폭력이 행하여 진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한다. 중속적인 한국 학계는 상징폭력을 당해 왔으며, 이것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서구 이론을 개발해서 서구에게 상징폭력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에 나온 이러한 견해를 볼 수 있는 한 예로, 김경만 (2015: 205)은 본인의 책이 필독서로 들어가 있는 한 서구 대학의 사회학과 강의 교안을 4쪽에 걸쳐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늘 서양 학자들의 책을 읽고 궁리하기 바빴는데, 이제 내 책이 필독서로서 서양 학자와 학생에게 상징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니, 내심 통쾌했고, 유쾌한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학자로서 본인의 저작을 다른 나라의 여러 학자 및 학생들이 읽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흐뭇함이 오는 것은 이해된다. 그러나, 『글로벌』에 나온 '상징폭력 대 상징폭력' 구도의 연구태도 혹은 '부국강병'식의 연구태도가 비판성, 성찰성 등을 주요 가치로 받아드려지는 현대 사회과학에서 윤리적으로 얼마나 적절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더 많은 상징자본을 모으고, 그를 바탕으로 상징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학문을 하는가? 한 기업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듯이 사회과학자는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 『글로벌』은 핵심 논점과 내용 전개는 부르디외의 개념에 크게 의존한다. 『글로벌』에 따르면 부르디외도 위에서 이미 언급된 전략(서구 배우기 → 서구와 경쟁하기 → 서구이론 만들기 → 서구에서 인정받기)을 통해서 글로벌 지식장에서 상징자본을 획득하고 상징권력을 휘두르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한다. 과연 부르디외가 지식장에서 상징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문을 하였는가? 부르디외의 상징폭력이라는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불평등,

차별 및 모순을 들추어내고, 상징권력의 그물망에서 계급적 불평등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약자들에게 현실 문제를 직시하고 저항할 수 있는 인식론적 도구로서 고안된 것이 아닌가? 『글로벌』의 헤게모니 투쟁적 연구태도에 파생된 게이티키팅이 학계의 다양한 아이디어의 창발을 막으면서 학계 내 및 학계간의 비민주성과 계급적 불평등성을 (재)생산하지 않는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³⁾

IV. “글로벌” 지식장의 변형과 확대: 특정 공인구를 써야만 가능한 것인가?

『글로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한국 사회과학의 비생산성과 후진성은 글로벌 지식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쟁하고, 거기서 독창성을 인정받고, 상징 이익의 기회구조를 ‘변형’하려는 노력의 부재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 지금까지 진화해온 고도로 추상적인 이론의 땅을 통해 형성된 계보나 전통 ‘안’에서 논쟁해 창의적 이론을 정립하는 것만은 고통스럽지만 글로벌 지식장에서 상징이익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129쪽)

이는 글로벌 지식장의 변형이 그 지식장이 “합의한 인식론적 기준과 규칙”(즉, 『글로벌』의 공인구)을 철저히 따르면서 그 안에서만 시작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지식장의 변형, 발전이 꼭 기존 헤게모니 문법에 따른 공인구를 썼을 때만 일어나는가? 다른 공인구 -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학자들과 다른 언어와 문법 - 를 쓸 경우에는 지식장의 변형과 발전이 불가능한가? 다시 말해서, 기득권 상징권력이 인정하지 않는 공인구를 쓴 연구는 학계에서 하나의 동등한, 정당한 연구행위로

3) 『글로벌』에서 김정만은 한국사회과학자들의 미시적 행태를 통해서 한국사회과학을 비판하고 있다. 이 논문의 3장은 좀 더 거시적인 규범적 측면에서 『글로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어서 대청성의 문제가 지적 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의 미시접근적 방법 비판의 근저에는 어떻게 학문을 하는 것이 ‘진정한’, ‘정당한’, ‘올바른’ 학문을 하는것인가라는 거시적, 규범적 태도와 사고가 자리 잡아 보인다. 이 논문은 그 지점에 대한 비판적 대화를 시도 한다. 이 논문 또한 가치중립적, 객관적, 비정치적, 진리추구적 아니며, 시대와 환경에 맞물린 규범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서로 다른 태도들의 대화와 논쟁을 통해서 인간, 사회 그리고 학문하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깊은 이해를 추구하고자 한다.

인식되어 질 수는 없는 것일까? 오히려 다른 인식론적 기준과 규칙을 써서 글로벌 지식장이 더 확대, 발전 되지는 않는가? 이러한 질문들과 관련해서 사회과학 중에 가장 보수적인 국제정치학 분야의 글로벌 지식장에서 벌어진 메타이론 논쟁을 예로 들면서 답해 보고자 한다.

냉전 직후까지 국제정치 합리주의자들(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은 실증주의 메타이론을 합의된 기반과 공인구로 삼고 글로벌 지식장에서 강력한 헤게모니를 유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 접어 들면서 복수의 국제정치 성찰주의자들이 탈실증주의적 메타이론 - 예, 실제에 대한 반원초주의적 입장, 자연과학식의 가치중립적 지식에 대한 회의와 사회세계에서 도덕과 가치 중시, 사회적 구성에 대한 관심 등 - 를 기반으로 실제 정치행위로서 국제정치와 학문으로서 국제정치학에 대한 그들의 비판적 의견을 개진해 왔다. 성찰주의자들은 합리주의의 보수성, 국가중심성 및 은폐된 이익에 혹독한 비판을 가함과 동시에, 여러 성찰주의 접근법(예, 비판이론, 탈구조주의, 페미니즘, 규범이론 등)으로 그 동안 글로벌 지식장에서 간과 혹은 무시된 다양한 국제정치현상을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제정치학에서 이를 소위 제 3차 대논쟁이라고 부른다 (George 1994; Smith 2002; Weaver 1996). 초기에 이 논쟁은 합리주의는 지식장의 중심부에, 성찰주의는 지식장의 주변부에 위치하는 구도로 진행이 되었다. 메타이론, 이론/실제 관계성 및 지식생산에서 가치의 역할 등의 이슈에서 합리주의와 성찰주의는 서로가 다른 공인구를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성찰주의자들의 비판에서 대해서, 합리주의자들은 ‘객관적’, ‘과학적’ 지식생산과 축적을 위해서 실증주의 인식론(『글로벌』의 공인구)과 과학적 방법론을 써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것은 올바른 사회과학 학술행위가 아니며, 『글로벌』의 공인구를 쓰지 않고 생산된 지식은 제대로 되지 않은 지식이라는 것이다. 즉, 글로벌 지식장에서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게이트 키퍼의 상징폭력을 구사한 것이다. 논쟁의 초기에 합리주의자들은 성찰주의자들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논쟁이 진행됨에 따라서는 ‘정당한 합리주의 사회과학 연구’와 ‘정당하지 않은’ 성찰주의 연구로 나누는 방식으로 성찰주의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했다. 합리주의 관점에서 성찰주의는 사회과학을 추구하는 국제정치학이 아니라, 문화연구의 일종이라는 인식이다. 합리주의 대표학자인 Keohane (1988, 392)은 성찰주의자들의 가장 큰 취약점은 성찰주의의 비판적 관점이 아니라 명확한 리서치 프로그램 부재라고 지적했다. 같은 합리주의 입장에서 Dougherty와 Pfaltzgraff (Sterling-Folker 2006, 8에서 인용)는 성찰주의 방법론은 어떠한 기준도 없는 “한낱” 해석에 불과하고, 이는 국제정치학의 “인식론적 무정부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합리주의자들은 존재론적 입장은 다르지만 실증주의 인식론을 채택한 국제정치학의 재래식 구성주의적 접근 (Wendt 1999)은 동등하고 정당한 연구행위로 인정을 한다. 결국, 실증주의 인식론과 관련된 과학적 방법론(『글로벌』의 공인구)이 합리주의자들의 생각하는 정당한 지식 생산, 유통의 상징폭력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고, 이를 통해서 지식장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합리주의자들의 게이트키퍼에 대하여 성찰주의자들은 바로 그 부분 - 타자에 대한 인식론적 한계와 폭력, 실증주의 메타이론 중심주의 - 이 이론과 현실에서 국제정치(학)의 학술적, 규범적 문제의 바탕임을 주장하면서, 합리주의 메타이론을 거부하고 성찰주의 메타이론적 방식을 써서 국제정치학에서 학문하기를 지속해 왔다. 지식장 내에서 합리주의자들의 무시, 차별 및 배제에도 불구하고, 3차 대논쟁은 지속되었고 그 결과는 불가공약성(incommensurability)이란 형태로 나왔다 (Weaver 1996). 합리주의와 성찰주의 메타이론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달라서 양립하기 어려우니, 국제정치에 대한 각기 각자의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그럼, 과연 『글로벌』의 공인구를 쓰지 않은 성찰주의는 글로벌 지식장의 저 변두리에 위치하면서 여전히 후진적이고, 비생산적인 학술행위로 남아 있는가? 한국 사회과학이 헤게모니적 서구 학계에 그러 하듯이, 성찰주의는 합리주의에 종속적이며 동등한 학술행위로 취급되지 않는가?

주류 합리주의와 비주류 성찰주의간의 논쟁은 서로 간의 이론적 불가공약성을 산출하였으나, 현재의 글로벌 지식장에서 성찰주의 접근법은 합리주의자들이 싫어하던, 좋아하던 간에 더 이상 주변이론이 아닌 하나의 동등하고 정당한 학술행위로 인식된다. 오히려 다른 메타이론(공인구)를 사용하는 성찰주의의 부상은 현재까지 진행된 풍성한 탈실증주의 경험 연구를 통해서 국제정치학의 다양성과 깊이를 증진시켰고, 기존의 실증주의에 매몰되어 있던 글로벌 지식장의 발전적 확대를 가지고 왔다. 『글로벌』의 공인구인 실증주의 메타이론조차도 탈실증주의의 부상으로 글로벌 지식장에서 그 학문적 정체성이 더욱 명료화 되었다. 학계에서 메타이론적 다양성 추구는 국제정치의 새로운 존재론을 식별하고, 지식장의 인식론적, 윤리적 지평을 넓히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Bleiker 2009; Callahan 2013; Campbell 1998; Shapiro 2004; Smith 2004). 예를 들면, 가장 주류 국제정치학계인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조차도 성찰주의자들 연구를 거의 독점적으로 다루는 International Political Sociology라는 저널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또한, 과거에는 다루지 않았던 성찰주의를 현재 많은 국제정치학 교재들이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Baylis et al. 2011; Brown and Ainley 2009; Burchill et al. 2009; Dunne et al. 2013; Steans et al. 2010). 현재 성찰주의 또한

지식장에서 합리주의 수준에 가까운 상징자본을 축적한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성찰주의는 자신의 공인구를 유일한 공인구라 하면서 타자에게 수용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자아가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타자의 공인구가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이고 열린 태도를 취할려 한다. 상징자본을 얻었으나 그것이 자신에게 당연하고 자명하게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상징자본이 게이트 키퍼식으로 상징폭력화되는 것을 경계한다.

더욱이, 21세기 들어서는 서구의 상대적 약화와 비서구의 부상과 맞물려 여러 서구발 국제정치이론의 서구중심성을 문제 삼으면서 비서구적 국제정치 이론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Acharya and Buzan 2010; Tickner and Waever eds. 2009). 그러나, 이 지점에서 비서구(non-western)적 연구과 탈서구(post-western)적 국제정치이론 연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비서구적 이론화를 추구하는 학자들은 패권적 지식을 생산하는 서구를 경쟁의 준거점으로 인식하면서, 서구와 비서구의 관계를 오리엔탈리즘 대 옥시덴탈리즘 식의 길항관계로 인식하는 흐름이 있다. 결국, 서구와 경쟁하면서 그들을 따라잡고 넘어서야 한다는 위계와 패권을 중시하는 연구 자세를 취한다. 형태에 있어서 한국적, 일본적, 중국적 사회과학이라는 방식으로 이론에 국적을 매기고, 이론을 민족주의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향성이 있다 (Chen and Cho 2016). 『글로벌』이 주 타겟으로 삼아 비판하는 연구방식이 이 비서구적, 민족주의적 사회과학 이론화이다. 이와 반면에, 탈서구적 이론화는 보편주의라는 표피를 가진 패권적 서구중심성이 행사하는 인식론적, 실제적 폭력성을 철저하게 비판하되, 비서구를 서구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탈서구적 정치이론을 통해서 현재 주류 서구이론을 거부하거나 전복을 시도하지 않는다. 서구의 언어도 유용하고 중요한 이론 자원이다. 현 시점에서 서구의 지식 생산이 지배적이기는 하나, 유일한 보편적 배움의 준거점이 아니다. 서구도 지식 생산의 여러 동등한 지역적 준거점들 중의 하나 일뿐이다. 연구자가 위치한 지점에서 식별, 생산된 지역지식을 중시하고, 그 지역지식간의 차이와 공유점에 주의를 기울인다. 중요한 것은 각기 다른 준거점들과 지역지식간의 서로에 대한 학습 과정이다. 타자와 자아의 마주침과 학습을 통해서 지식은 연계, 공유, 확장, 발전된다. 윤리적 측면에서 이 학습과정은 타자를 환대하고, 스스로에게 비판의 칼날을 세우는 반패권 지향적 학습이어야 한다. 서구와 비서구와의 관계성에서는 서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상대가 있음으로서 자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론을 가진다. 즉, 서로 간에 배우는 학습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발전되고, 서로 간에 의존적이다. 그들을 통해서 나를

더 명확히 이해하며, 나의 존재는 그들과의 관계의 산물이다. 그들 또한 나와
관계에서 구성된다. 복수의 지역적, 탈서구적 이론 개발을 통해서 현재의 선진
서구 대 후진 비서구의 위계적 구도가 해체된 덜 패권적, 더 국제적, 더 민주적,
더 공평한 지식장을 지향한다 (Kavalski and Cho 2015; Shani 2008).

요약하자면, 『글로벌』의 주장과는 달리 지배적 주류 학자들의 헤게모니 공
인구를 쓰지 않아도 글로벌 지식장의 변형 및 확대가 가능하고, 오히려 학문의
깊이와 다양성이 추구되어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상징자본을 주어진
한정적 자원으로 볼 때, 상징자본의 추구하고 축적은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상징자본을 확장성 있는 공유자원으로 이해할 때 자아와 타
자의 학습을 통해서 상징자본을 덜 갈등적인 방식으로 더 증가 시킬 수 있다.
부르디외의 저작을 기반으로 『취향의 정치학』을 쓴 홍성민은 한국 학계의 3가
지 병폐로 성찰적 지식보다 수단적 지식을 강조하는 기능주의, 분과학문의 패거
리 중심의 특정 텍스트를 강조하는 교조주의, 서구 텍스트를 다름에 있어서 우
리의 서구가 아닌 서구의 우리가 되어버리는 식민성을 지적했다. 『글로벌』은
한국 학계의 과도한 기능주의는 날카롭게 지적 했으나, 서구 헤게모니 공인구를
유일한 게이트 키퍼로 맹신하면서 교조주의와 식민성의 늪에 빠진 것은 아닐까?

V. 결론을 대신해서: 서구의 인정을 통한 서구 종속성 극복 - 배태된 식민주의

『글로벌』은 한국 학계의 서구 종속성 극복을 위해서 한국 학자들은 서구의
언어와 문법을 철저히 내재화 시키면서,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서구 주류 학계가
인정하는 한국발 (서구) 이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궁극적으로 서구
종속성 극복의 성패 여부는 한국 사회과학 자체보다는 서구로 부터의 인정에 달
려있다. 지배적 타자인 서구의 마음에 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런 맥락에서,
『글로벌』의 공인구로 (서구)이론을 만드는 것은 타당한 전략이며, 그 이론은
헤게모니를 쥔 서구 주류 학계의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는 이
러한 사고의 근저에 깔린 규범적 전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국의 지배를 받
는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식민지가 제국의 인정을 받는다고 종속성을 벗고 제국
과 동등해 지거나 제국의 황제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가? 서구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 한국 사회과학은 언제나 후진적, 비생산적, 종속적이어야 하는가? 실제에서 『글로벌』의 전략이 헤게모니 제국에 철저히 동화되려는 노력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서구 종속성의 극복이란 서구에 대한 철저한 동화를 넘어서 더 서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글로벌』의 서구 인정받기 전략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혹은 한국 학자가 만든 (서구) 이론이라는 미명하에, 소위 글로벌 지식장에서 서구 지적 헤게모니의 타당성, 적실성, 그리고 보편성을 증명하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Cho 2015). 그람시가 지적했듯이 피지배자의 동의 혹은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 내는 것이 헤게모니 지속의 필수 요소이며, 그것이 헤게모니의 상징폭력이다 (Cox 1983). 『글로벌』의 서구 종속성 극복 전략은 여기에 부합된다. 『글로벌』의 ‘서구 인정받기’라는 성공의 전제 조건은 이론화를 시도하는 주체가 현재 심리적 식민의 상태라는 것과 헤게모니를 모방하고 동화되어 완전히 같거나 동등해지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 준다. 그러나, 서구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는 점은 식민적 주체가 결코 완전히 동등해질 수는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경원 2011). 서구 헤게모니와 친밀해질 수 있으나 평등하기는 힘들다. 즉, 『글로벌』의 핵심 주장 속에는 헤게모니를 삶의 단 하나의 보편 준거점으로 삼는 주변 지식인의 은폐된 식민주의가 배태되어 있다.

한국 학계의 기존 서구종속성 비판 담론과 관련해서, 『글로벌』은 우리는 서구 이론을 떠나서 “서구의 이론적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멸균한 상태”에서 “독자적인 지적 전통을 마련”할 수 없다고 역설한다 (김경만 2015: 74, 250). 그러면서, 한국 사회과학에 존재하는 “‘우리 전통’, ‘우리 경험’, ‘우리 현실’ 같은, 흡사 ‘우리식 사회주의’를 연상케 하는 폐쇄적이고 나르시시적인 “최종어휘”” 변화를 요구 한다 (김경만 2015: 14). 물론 그간 한국 학계에서 서구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서구 이론을 배척하는 방식으로 ‘순수 토착지식’에 바탕을 둔 한국적 이론화 - 제국주의에 대항한 민족주의적 이론화 - 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왔다. 『글로벌』의 주 비판 대상은 이러한 타자를 배척하는 본질주의의 오류에 빠진 토착주의적 이론화로 보여 진다. 학문이 논쟁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점에서 그 비판은 적절하다. 그러나, 『글로벌』이 제안하는 서구 종속성 극복 방안 - 제국주의 동화를 통한 제국 헤게모니 기여 - 은 실제로는 서구 중심성과 우월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헤게모니의 논리를 따르는 『글로벌』의 공인구는 지식생산, 소비 및 유통의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면서, 그 자체가 ‘폐쇄적이고 나르시시적인 최종어휘’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주체들 간의 위계적 갈등과 폭력을 (재)생산하는 토착적 본질주의 혹은 제국의 헤게모

니를 단순히 수용하기보다는, 다른 관점이나 접근 방법은 없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학문을 함에 있어서 서구를 거부하거나 전복할 필요가 없다. 서구에 좋은 것,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배우고 이용하면 된다. 서구에 대해서 공감과 선망이 있을 수 있고, 필요시에는 모방과 복제의 방식으로 서구를 익힐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작동 중인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가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서구로부터 배운다는 것이 서구를 유일한 보편 진리의 준거점으로 인식하고 행동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 지식이 로컬(local) 지식이듯이 서구 지식도 로컬 지식이다. 로컬 지식은 글로벌하게 공유 될 수 있다. 즉, 헤게모니적 서구를 주변화 시켜서 서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중심주의를 거부한다. 서구 중심주의, 우월주의, 예외주의에 비판적 시선을 던지면서 연구하는 것은 흡스적 헤게모니 투쟁에서 비서구 뿐만 아니라 서구도 더 자유롭게 하는 작업이다. 비/서구의 종속관계는 단지 지식 축적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도 의미한다. 수평적인 입장에서 로컬 지식의 식별과 생산, 로컬 지식 간의 공유점/차이점 인식과 접목, 로컬 지식 간의 전파와 교류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서구 지식도 로컬 지식이며, 서구도 본질적으로 그 스스로만의 본질적인 서구 자원으로 서구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고, 타자와의 지적 교류 협력과 학습을 통해서 구성이 되었다. 예를 들면, 서구발 계몽주의, 민주주의 등도 동양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 발전이 된 것이다 (황태연 2011; 크릴 1997; The Guardian 2016/11/09). 이러한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배움의 주체가 자기비판적, 개방적 태도를 지니고 타자를 대하고 받아드리는 것이다 (황태연 & 김종록 2015). 이론화가 정치적 행위임을, 학문으로서 사회과학의 발전과 현실에서 국제정치 변동이 연루됨을 고려할 때 (Nugent 2010), 이론가의 연구 태도는 그 혹은 그녀가 다루고자 하는 연구 내용만큼 중요하다. 더욱이, 연구 태도는 연구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타자 - 특히, 패권적 서구 주류 학계 - 와 한국 사회과학의 관계 맺기에 있어서 연구 내용과 함께 연구 태도와 이론화의 방향성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국문 논문

- 강정인. 2013. 『정치학의 정체성: 한국 정치학의주체성을 위하여』. 서울: 책세상.
- _____. 2014. 『현대 한국 정치사상: 탈서구중심주의를 지향하며』. 서울: 아산서원.
- 강정인 외a. 2016. 『탈서구중심주의는 가능한가: 비서구적 성찰과 대응』. 파주: 아카넷.
- 강정인 외b. 2016. 『탈서구중심주의는 가능한가: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우리 학문의 이론 적 대응』. 파주: 아카넷.
- 교수신문. 2003. 『오늘의 우리 이론 어디로 가는가: 현대 한국의 자생이론』. 서울: 생각의 나무.
- 김경만. 2015. 『글로벌 지식장과 상징폭력: 한국 사회과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 파주: 문학동네.
- _____. 2016. “우리는 왜 글로벌 지식장으로 가야 하나?” 『경제와 사회』 109, 279-288.
- 김경일 외. 2006. 『우리 안의 보편성: 학문 주체화의 새로운 모색』. 파주: 한울.
- 김덕영. 2016. 『사회의 사회학: 한국적 사회학 이론을 위한 해석학적 오디세이』. 서울: 길.
- 김영명. 2010. 『담론에서 실천으로: 한국적 정치학의 모색』. 파주: (주)한국학술정보.
- 김우상. 2007. 『신한국책략 II: 동아시아 국제관계』. 서울: 나남.
- 김종영. 2015. 『지배받는 지배자: 미국 유학과 한국 엘리트의 탄생』. 파주: 돌베개.
- 이경원. 2011. 『검은 역사 하얀 이론: 탈식민주주의의 계보와 정체성』. 파주: 한길사.
- 정수복. 2015. “김경만의 ‘지적 도발’에 대한 정수복의 ‘응답.’” 『경제와 사회』 108, 254-287.
- 정태석. 2016. “글로벌 지식장 논쟁과 사회(과)학의 의미: 한국 사회과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 『경제와 사회』 110, 411-417.
- 홍성민. 2004. 『피에르 부르디외와 한국사회』. 서울: 살림.
- _____. 2008. 『지식과 국제정치: 학문 속에 스며 있는 정치권력』. 파주: 한울.
- _____. 2012. 『취향의 정치학: 피에르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읽기와 쓰기』. 서울: 현암사.

- 황태연. 2011. 『공자와 세계 1: 공자의 지식철학(상)』. 파주: 청계출판사.
황태연, 김종록. 2015. 『공자, 잠든 유럽을 깨우다』. 파주: 김영사.
크릴 H.G. (이성규 역). 1997. 『공자: 인간과 신화』. 파주: (주)지식산업사.

국문 언론자료

- “대중서에만 공들이는 학자들 기회주의자.” 『한국일보』 2015/06/03.
“사회과학계 사라졌던 ‘실명 비판’의 부활.” 『조선일보』 2015/06/11.
“학문의 서구 종속성 극복하려면 글로벌 지식장 안에서 대결해야 한다.” 『교수신문』 2015/06/01.
“한국 사회과학의 서구중심주의 논쟁… 서강대 김경만 교수 vs. 강정인 교수.” 『경향신문』 2015/06/07.
“한국 사회학, 미국 유학과 지배로 다양·주체성 상실.” 『경향신문』 2010/08/20.

영어논문

- Acharya, Amitav, and Barry Buzan, eds. 2010. *Non-Wester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Perspectives on and beyond Asia*. New York: Routledge.
Baylis, John, Steve Smith, and Patricia Owens, eds. 2011.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leiker, Roland. 2009. *Aesthetics and World Politic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Brown, Chris, and Kirsten Ainley. 2009. *Understanding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Burchill, Scott, Andrew Linklater, Richard Devetak, Jack Donnelly, Matthew Paterson, Christian Reus-Smith, and Jacqui True, eds. 2009.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Basingstoke: Palgrave.
Callahan, William A. 2013. *China Dreams: 20 Visions of the Fu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Campbell, David. 1998. *National Deconstruction: Violence, Identity and Justice in Bosni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Chen, Ching-Chang, and Young Chul Cho. 2016. "Theory." In Aoileam Ni Mhurchu and Reiko Shindo, eds. *Critical Imaginations in International*

- Relations*. London: Routledge, 245-61.
- Cho, Young Chul. 2015. "Colonialism and Imperialism in the Quest for a Universalist Korean-style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28(4), 680-700.
- Choi, Jong Kun. 2008. "Theorizing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in Korea." *Asian Perspective* 32(1), 193-216.
- Chun, Chaesung. 2013. "South Korea Foreign Policy and East Asia." In Rudiger Frank and John Swenson-Wright, eds. *Korea and East Asia: The Stony Road to Collective Security*. Leiden: Brill, 155-79.
- Cox, Robert W. 1983. "Gramsci, Hegemon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n Essay in Method." *Millennium* 12, 162-75.
- Cox, Robert W. 1986.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 Robert O. Keohane, ed. *Neorealism and Its Cr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4-254.
- Dunne, Tim, Milja Kurki, and Steve Smith, eds. 2013.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Discipline and Divers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oucault, Michel. 1979.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London: Peregrine.
- George, Jim. 1994. *Discourse of Global Politics: A Critical (Re)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Colorado: Lynne Rienner.
- Hollis, Martin. 1994. *The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An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llis, Martin, and Steve Smith. 1990.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ang, Jung In. 2006. "Academic Dependency: Western-centrism in Korean Political Science." *Korea Journal* 46(4), 115-135.
- Kavalski, Emilian, and Young Chul Cho. 2015. "Governing Uncertainty in Turbulent Times." *Comparative Sociology* 14, 429-42.
- Keohane, Robert O. 1988. "International Institutions: Two Approach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2, 379-96.
- Nugent, David. 2010. "Knowledge and Empire: The Social Sciences and United States Imperial Expansion." *Identities: Global Studies in Culture and Power* 17, 2-44.

- Shani, Giorgio. 2008. "Toward a Post-Western IR: The Umma, Khalsa Panth, and Critical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10, 722-34.
- Shapiro, Michael J. 2004. *Methods and Nations: Cultural Governance and the Indigenous Subject*. London: Routledge.
- Smith, Steve. 2002. "The United States and the Discipline of International Relations: Hegemonic Country, Hegemonic Discipline".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4, 67-85.
- Smith, Steve. 2004. "Singing Our World into Existence: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September 11."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8, 499-515.
- Smith, Steve, and Patricia Owens. 2005. "Alternative Approaches to International Theory." In John Baylis and Steve Smith, ed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71-93.
- Steans, Jill, Lloyd Pettiford, Thomas Diez, and Imad El-Anis. 2010.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Perspectives and Themes*. London: Longman.
- Sterling-Folker, Jennifer. 2006. "Making Sense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 Jennifer Sterling-Folker, ed. *Making Sense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1-12.
- Tickner, Arlene, and Ole Waever, eds. 2009.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hip around the World (Worlding Beyond the West)*. New York: Routledge.
- Tickner, Arlene B., and David L. Blaney, eds. 2012. *Thinking International Relations Differently*. London: Routledge.
- Waever, Ole. 1996. "The Rise and Fall of the Inter-Paradigm Debate." In Steve Smith, Ken Booth and Marysia Zalewski, eds. *International Theory: Positivism and Beyo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49-185.
- Wendt, Alexander.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영어 인문자료

"There is no such thing as western civilisation." *The Guardian*, 9 November, 2016.

Abstract

**A Critical Probe into How Korean Social Science Engages
with the Hegemonic Western Academia: Focusing on
『Global Intellectual Field and Symbolic Power』**

Young Chul Cho ■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inwoo Choi ■ Hanyang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ways in which Korean social science engages with the hegemonic Western social science in the global academia. Toward this end, methodologically this paper looks at a recently published, polemic monograph by a Korean sociologist, *Global Intellectual Field and Symbolic Power: Critical Reflection on Korean Social Sciences* (2015). According to this monograph, positivist meta-theory as a self-evident basis of social science should be adopted in social science theorization. Therefore, based on the positivist meta-theory, Korean social scientists produce their own explanatory theories which can be accepted in the global intellectual field dominated by mainstream Western scholars. When made-in-Korea or made-by-Korean theories receive a favorable recognition from the West, Western-dependency in Korean social science scholarship can finally be overcome, the monograph argues. However, this line of meta-theoretical argument for explanatory social science theory is monolithic, as it ignores different understandings of meta-theory and constitutive social science theory. Plus, the monograph's argument of positivist meta-theory as only valid plays a gate-keeping role in deciding legitimate/proper or illegitimate/improper knowledge in the intellectual field. This is an epistemological violence which affects scholars research activities and even daily lives. Considering the scholarly trajec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it is possible to change and develop the global intellectual field by using post-positivist meta-theoretical underpinnings for social science theorization. The monograph's suggestion of overcoming Western-dependency via the West's

favorable recognition is embedded in colonial thinking. Since theorization is a political act and social science development has been complicit in real politics, theorist's research attitude matters as much as his/her research content in theorization.

Key Words: Western-centrism, Social science, Knowledge production, Meta-theory, Gate-keeping

